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씩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B]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C]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D]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E]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F]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언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 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깨끗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테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랭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쉼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침침한 산길'과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쌌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같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 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기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갯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 문제풀이 순서

앞으로 문제풀이 순서는 굉장히 강조할거다. 문제풀이 순서는 가장 쉽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다. 우선 이 지문은 2022년 9월모의고사다. 시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시를 드는 것이기에 수필인 지문과에 대한 문제는 제외시켰다. 가와 나 지문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설계해보겠다.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지문을 먼저 읽을지를 정해야 한다. 우선 가와 나 공통의 보기가 있고 단독문제가 하나씩 있다. 보통 같으면 가 있는 문제를 위주로 선정한다. 두지문이 같이 묶여 있는 문제의 경우 보기를 통해 기준이 제시되어 쉬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를 먼저 읽으면 보기가 없어 판단이 어려운 시의 선지를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판단이 쉬운 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둘 다 보기가 있으니 시의 결모습을 보고 결정해라. (가)의 시 같은 경우 한자도 섞여 있고 대충 봤을 때 순수 한글로 쪽 풀어진 (나)보단 읽기가 수월해 보인다. 그럼 나 지문을 선정하고 나 지문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와 선지를 선정한다. 23번의 3번과 4번. 그리고 26번을 풀 수 있다. 그럼 보기(나)>나>23번 3,4>26번 순으로 풀면 되겠다. 반드시 보기 문제를 먼저 풀어라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이니 상대적으로 판단이 쉽고 선지를 풀면서 글을 출제자의 기준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3번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1번 선지 판단방법

선지에서 내가 판단해야 할 주관부분은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을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한다. 즉 이 글에서 나온 모든 자연에 관련된 단어는 보기 주제가 없다면 과거 추억이야기라던지 다른 비유적인 뜻을 가진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보기 주제성 아래에선 무조건 여행하며 본 자연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앞에 사실부분인 "희안할 골 길"이라던지 "백화"라던지 여기서 나온 모든 길과 백화 즉 자연은 화자가 여행 속에서 만난 자연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주관성이 사라진 객관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선지의 주관과 사실을 보기와 대응시켜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를 1번선지라 한다.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지문을 읽을 때

기준을 낮춰라. 이해할 필요 하나 없고 그냥 시의 맥락정도만 가볍게 보며 보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정도 겠구나(못해도 상관없음)만 읽고 빠르게 넘어가라.

📍 보기문제 및 내용문제 접근

시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앞서 말했듯 보기의 주제성에 강하게 종속 된다. 즉 보기에서 나온 내용이 위의 보기처럼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있으면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단어와 문장들은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지점을 이용한다. 선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선지 형태로 나눈다. 1번선지는 선지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화가 가능해서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선지 2번선지는 선지만으로 정당화가 안 되어서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지. 각각 체계화된 판단 방식을 위 문제를 통해 해설해보겠다.

📍 2번 선지 판단방법

마찬가지다 2번선지의 주관인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 형상화와 보기의 기준인 자연을 주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일치하는 말이다. 즉 사실부분에 자연 관련된 단어만 써져 있으면 100%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맞는 선지다. 앞에 "별"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이 선지는 맞는 선지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처럼 이걸 보고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의 하늘의 별들이 쏠리며 꽃과 같이 난만하다"라는 말이 자연을 주관적으로 묘사한거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볼 수 없나?를 고민 하는 순간 이미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문장단위의 판단으로 주관이 개입되어 틀릴 확률이 매우 올라 간다. 선지는 결국 수험생을 낚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지를 보고 글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되어 오답률을 높이는 행위다. 그래서 1번선지로 주는 선지들을 깔끔하게 1번선지처럼 처리하는게 중요하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3번 선지 판단방법

마찬가지로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딱 들어맞는다. 즉 앞에 사실 부분에서 "낭패를 겪는 다"라는 말이 맥락을 떼고 보면 입과 이별해서일수도, 꿈을 좌절했을 수도, 임금한테 버림받았을 수도, 즉 이 문장을 보고 사람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보기 주제성 아래에 놓여지면 반드시 여기서 낭패를 겪거나 무슨 부정적인 단어들 이 써져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져 내 면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선지도 선지만 보고 바로 지울 수 있다.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4번 선지 판단방법

이 선지는 주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기와 주관이 정 반대다. 이렇게 보기와 주관이 정 반대일 경우 지문에서 어떤 단어가 오던간에 적절할 수 없다. 즉 정답선지가 된다. 보기에선 사람들은 내면 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를 내적성찰로 이끌어 해결시키는 존재가 "길"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 데 주관에선 내적 성찰을 사람들이 이끌어낸다고 하고 있다. 내적성찰을 이끌어내는건 사람이 아니라 길이며 사람들은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즉 선지만 보고 바로 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다.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 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5번 선지 판단방법

이제 1번선지가 아닌 2번선지가 나온다.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적혀져 있지 않고 보기랑 반대되지 도 않는다. (가)처럼 자연과 정서적 교감이란 주제 아래에서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나올 수도 안나올 수도 있다. 자연에 대한 교감이니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즉 지문으로 가서 확인해봐야하는 서브 주제다. 마찬가지로 (나)도 길에 대해 깨달음만 얻는다고 나 오지 긍정적인 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보기 주제성에 없는 내용이고 주제랑 정 반대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 가서 확인하러 가야 한다. 가서 확인하러 갈때 선지의 사실부분 주변 앞 뒤 문장으로 간다. 만약 적절한 선지일경우 주변에 선지의 주관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해야하고 적절치 않은 선지일 경우 선지의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그 단어가 없으면 된다. 앞으로도 꼭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평가원은 이렇게 세가지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 니 절대 글의 내용을 가지고, 혹은 문장 단위의 판단으로 이 시는 이 문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 선지같은 경우 "난만"과"향기"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란 말과 바뀌진다. 난만이란 뜻은 꽃이 많이 피어난다라는 뜻이고 향기는 말그대로 냄새를 좋게 표현한거다. 그래서 이 사실부분에서 바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4번

📍 문제분석

이렇게 두 지문이상을 엮어서 물어보는 내용문제는 선지 구성이 대부분 주제성에 딱 들어맞는 선지(주관과 딱 들어맞는)1개 아예 아닌 선지3개 세부적인 디테일에선 맞으나 주제성과 거리가 먼 선지1개등으로 구성될 때가 많다.

즉 한 지문을 읽고 해당 선지들을 봤을 때 주제성과 주관에 딱 들어맞는 선지는 단 1개다. 그리고 그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그걸 찾고 나머지 지문을 읽고 해당 문제에 왔을 때 1번부터 선지를 보는게 아닌 우리가 골라놓은 정답선지만 보고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야 한다.

📍 2번 선지 판단과정

BEST는 글의 주제성에 따라 바로 1번선지처럼 지워내는거다. 글의 주제상 현재 함께 있지 않은 당신을 떠올리며 쓴 글이지 재회를 기다리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긍정적 분위기와 반대된다.

아직 능숙치 않은 학생들은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이란 단어에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정당화시킬 단어는 없으므로 2번선지처럼 처리한다.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의 주변부에 '노란 슬픔'이 선지의 주관인 기대감과 반대되는 단어다.

... BEST

문제 풀이 순서대로 다들 먼저 읽었다면 2~5번까지 선지들을 봤을 거다. 그때 5번선지에 정답을 픽스해 놓고 (가)를 읽고 와서 바로 5번선지를 보고 정답을 찍고 마무리하면 된다.

📍 3번 선지 판단과정

BEST는 역시 글의 주제성으로 쳐내는거다. (가)는 금강산을 여행하며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는 글이다. 그러므로 고독감이란 부정적 키워드는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지문의 풍속이야기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고독감이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능숙치 않은 친구들은 또 다시 2번선지처럼 처리하면 된다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문 (가)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어젯밤이란 사실 주변부에 바다의 별을 보았다. 라는 워딩이 있다. 글을 다 읽어 보았을 때 바다의 별은 여행 중 만나는 긍정적인 대상이며 마지막 연 마지막 워딩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고독감과 반대된다.

📍 1번 선지 판단과정

구월이란 단어만 보곤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므로 2번선지다.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구월이란 사실의 주변부에 고뇌의 심화를 정당화 시킬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4번 선지 판단과정

주제성에 의해 쳐내면 된다. 둘 다 주제성과 벗어난 아예 없는 내용이다. 이걸 보고 찾으러 가면 없는 내용을 찾으러 가는 것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5번 선지 판단과정

사실부분만 보곤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2번선지.

지문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 정당화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문 (다)

↓ 정당화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집이나 언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가) 사실의 주변부에 생각에 잠기어 왔다라는 워딩이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킨다. (다)의 주변부에 주관을 그대로 적어놓은 워딩이 있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5번

📍 BEST풀이 (차차 배워 갈)

시는 절대적으로 보기의 주제성에 종속된다. 보기의 기준이 절대적이다 라는걸 이용한 풀이다. 1~4번의 주관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기의 주제성이었던 자연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거나 정서를 드러내는 것 모두 보기의 주제성인 자연과 정서적교감이나 내면조응이라고 볼 수 있고 3번과 4번도 자연을 주관적으로 묘사한다는 것과 주제성이 일맥상통하다. 그렇다면 이 선지들은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했을 때 혹 여나 적절치 않을 확률이 있긴하나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선지를 보고 지문 으로 돌아가는 투자를 하지 않고 건너뛰고 5번선지를 먼저 보는게 이득이다. 5번선지는 주제성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니 압도적으로 적절치 않을 확률이 높다. 이게 정답일 선지를 먼저 보게 된다.

📍 왜 이렇게 풀어야 하나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는건 일종의 투자다. 시간과 내 집중력을 소모시킨다. 게다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선지와 지문을 대응시키며 내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나도 높다. 즉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답률적으로 리턴값은 작고 리스크는 큰 선택이다. 보기의 주제성의 원리를 안다면 정답이 가장 높은 선지만을 보며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쪽쪽 해나갈거다. 최종버전을 보여 준거다. 본인이 만약 이 방식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평가원 기출 열어보고 적용해봐라.

🗨️ 자세한 풀이, 기초잡기

결국엔 초반단계에선 1번선지는 1번선지대로 선지만 보고 처리하고 2번선지는 2번선지대로 사실의 주변으로가서 단어위주의 판단을 하는 걸 연습해야한다. 그게 기본이다.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 정당화

화자의 내면에 조응시킨다라는 주관과 생각에 잠긴다라는 말은 바로 바꿔쓸 수 있는 정당화다. 그러니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처리한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지문 (가)

→ 정당화

백학(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학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고 있고 왔더니라

앞의 사실부분엔 화자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한다. 주변을 봤을 때 외로움을 잇는다는 워딩이 주관을 정당화시킨다.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 정당화

유구함이란 주관이 바로 앞에서 "오래여 삭은"과 바로 정당화가 된다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쌌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생동감이란 표현이 기출에서 정당화가 되려면 시각 촉각 등등의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된다. 앞 에 사실부분에 청각적 표현으로 묘사를 해냈으니 선지만 보고도 맞다

🗨️ 기준 확립

이렇게 기출을 보며 이 표현이 정당화가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 해! 라는 기준을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누군가는 보고 이걸 이렇게 볼수있나라고 고민할 때 데이터를 기반해서 바로 찍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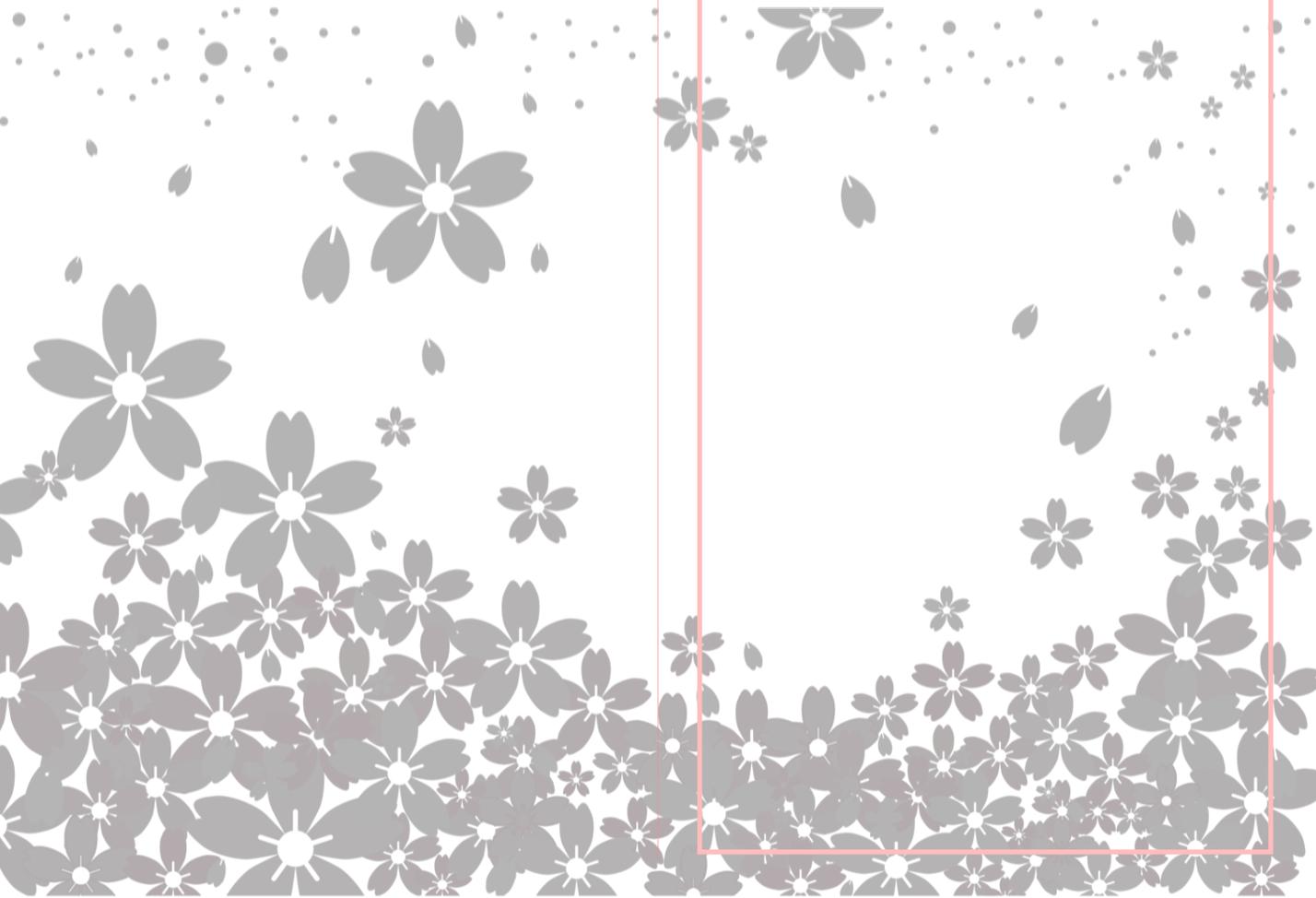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㉔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지문 (가)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여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더니,

주관이 화자의 태도변화다. 사실 점수대가 높은 친구들이라면 이미 주제성으로 지문을 보지도 않고 걸러냈을 거다. 하지만 기초를 다지는 입장에선 차분히 일관된 원리를 적용해보자. 앞에 사 실부분은 동해안과 산장이란 표현밖에 없다. 그러므로 태도변화라는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가 없다. 그러니 주변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단어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태도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선지를 최소화시키라는 거고 주제성으로 선지를 압축시키고, 단어위주의 판단을 하라는 거다. 4줄짜리 문장을 보고 이걸 태도변화라고 볼 수 있나? 볼 수 없나? 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 에서 정답률에서 밀리고 있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6번

📍 문제분석

25번과 같이 시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제성과 문제 발문을 기준으로 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방식은 10월달 짬에 학습할 베스트풀이다. 그러니 지금은 기본적인 풀이를 잘 익히고 시간이 남는다면 베스트 풀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적용을 해봐라.

📍 1번 선지 판단 과정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사실부분만으론 정당화가 안된다. 차분히 돌아가 보면 A에서 말한 사람들 뜻을 좇지 않는다가 구체화된 게 B에서 서술되고 있다.

① [A]에서 '같이'가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EST

보기의 주제가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져~라고 나와 있으니 길과 사람과의 관점 차이가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가 4개일거다. 보기의 객관화 작업으로 보기의 주제성이 절대적으로 작용해 시의 모든 표현과 단어들은 보기의 기준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니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하는 선지는 사실부분으로 가서 확인하려 간다했을 때 적절할 확률이 적절하지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 굳이 확인하려는 작업을 하지 말고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선지를 보러가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 2번 선지 판단 과정

1번과 마찬가지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 사람들은 ~라고 말한다와 같이 사람들이 길에 대해 받아들인 생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지의 주관이 정당화 된다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BEST

1번과 마찬가지로 보기를 확인해보면 길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므로 당연히 길에 대해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했을 때 적절할 확률이 적절하지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자

📍 3번 선지 판단 과정

선지의 주관인 깨닫지 못한 바가 D에서 구체화된다가 D에서 길의 의미가 ~이런걸지 모른다고 제시 되어있으므로 정당화가 가능하다.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BEST

마찬가지로 보기의 주제성과 들어맞으므로 패스하고 넘어가자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 4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어 제 뜻을 굽혀 복종하는이다. 마찬가지로 사실부분만으론 이를 정당화시킬 순 없으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한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다.

아는 사람에게만 ↔ 제 뜻을 굽힌

자신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하다고 하니 뜻을 굽힌다는 주관어 반대되는 단어가 설계되어 있다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BEST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되는 말이 써져있다. 보기에선 사람들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길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는 선지가 길이 뜻을 굽힌다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풀이는 선지를 보자마자 주제성과 반대되니 적절할 수 없다가 최선이고 차선책은 보기의 선지와 어긋나니 이 선지는 적절할 확률보다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 이 선지를 보러 가는 투자를 하는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위의 판단과정처럼 깔끔하게 판단해내면 된다.

📍 5번 선지 판단과정

F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태도가 변화되니 쉽게 답을 찍을 수 있다.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27번

📍 문제분석

수필의 보기도 다른 문학지문들처럼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객관화를 시도한다.
그러니 1번선지와 2번선지를 잘 나눠서 풀어보자.

📍 1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를 보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낀다는 말은 문장자체로 맞는 말이다. 편지를 받는 느낌을 준다든곤 곧 친근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니 그럼 우린 이 글이 편지의 형식으로 써져 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런데 보기의 주제성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로 1번선지처럼 선지만 보고 지을 수 있다.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정당화

지문 (가)

싸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 2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의 사실 부분만 보면 노란슬픔의 이야기가 가슴의 병을 얻는 여인과 관련된 건지 알 수 없다. 보기에 직접적으로 나와있진 않으니. 그러니 지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 2번선지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지문 (가)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낮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펴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 당신 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리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많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선지다. 나중에 소설에서 다루겠지만 소설에서 내용에 대해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물의 반응이다.

인물의 반응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건 크게 3가지다. 해당 반응을 이끌어낸 반응/해당 반응/ 해당반응이 이끌어낸 다음 반응으로 인물의 반응의 연결관계를 주로 물어본다

인물의 반응의 연결성에선 소설파트에서 제대로 다룰테니 가볍게 이정도만 설명하고 가겠다.

그렇다면 노란 슬픔의 이야기라는 반응의 연결성에 따라 이는 가슴의 병을 얻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4 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 3번 선지 판단과정

이 선지에 대한 판단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겠다. best버전은 보기의 주제성에서 바로 걸러내서 1번선지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보기에서 삶의 양면성은 두 가지 이야기를 대비시켜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양면성은 반드시 두 가지 이야기의 대비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3번선지는 고향의 풍속이야기라는 한 이야기에서의 경험 대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지문에 진짜 있는 내용이든 없는 내용이든 적절할 수 없는 선지가 되는거다.(실제로 가서 확인해보면 없기도함)

아직 능숙치 않은 학생들의 버전은 선지만 보곤 육보름에 대해 글쓰기와 당신의 경험을 대비한다는걸 모르기 때문에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2번선지다. 그러므로 육보름이란 사실 주변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쓰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주변에 가면 둘을 대비한 문장은 없다.

📍 4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고향의 풍속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에 적혀있으면 이 선지는 1번선지처럼 선지만 보고 판단이 가능하다. 부잣집 기왓장을 벗겨오는 건 글을 읽어봤으면 고향에 대한 풍속이야기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만 보고 지운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5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인 쾌감이 선지의 사실 부분인 끼득 깨득이나 허물없는 즐거움이란 단어들에 바로 대응되므로 선지만 보고 바로 지을 수 있다.

⑤ '자깅자깅',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